

월드컵 행사 시 훌리건(Hooligan)에 대한 안전 대책

김태환, 권정훈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The Study of Safety Counterplans Against Hooligan in Worldcup event

Tae-Hwan Kim, jong-hun kyun
Department of Security Service, Yongin University

1. 서론

세계는 지금 전지구화(全地球化:Globalization)의 와중에서 20세기의 세기말(世紀末)을 마감하고, 21세기 초입(初入)에 들어선 우리는 전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인 2002년 월드컵 대회를 우리나라가 일본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는 시기적(時期的)으로 또한 지리적(地理的)으로, 한반도에 위치한 우리나라에 커다란 의미와 결과를 미친다. 동시에 우리들에게 생소하고 복잡한 국제 경호·경비·안전의 어려운 환경을 가져다주고 있으며 특히 경기장에 있어서 훌리건(Hooligan) 안전대책은 테러나 화재 등의 위험요소와 다른 관중의 일시적 흥분과 질서의 무실서 속에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관중이 운집한 월드컵경기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도 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대회에서의 안전 활동을 위한 연구대상은 다양한 분야가 있으며 첫째,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둘째, 반(反)미 세력 집단의 독자적·연계적 테러 가능성 셋째, 불특정인의 테러, 모방 범죄 또는 사회적 일탈행위 가능성 마지막으로 넷째, 훌리건(Hooligan)에 의한 난동이 있을 것이다. 상기의 가능성 중 훌리건(Hooligan) 문제는 아직 생소하며 국가 기관에서도 실제의 경험이 부족한 실태이다. 따라서 월드컵을 치른 우리의 성공적인 안전대책 사례중 다른 분야보다 연구가 빈약한 훌리건(Hooligan), 훌리거니즘(Hooliganism)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 1 장은 훌리건(Hooligan)의 이해와 안전문제를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을 서론부분에 제시하였다.
- 제 2 장은 국내·외 축구대회 경기를 바탕으로 훌리건(Hooligan)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제 3 장은 홀리건(Hooligan)의 사전 안전대책에 대해 국내·외를 조사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홀리건(Hooligan)에 대한 대책방안의 제안 하고자 한다.

2. 국내·외 홀리건(Hooligan)의 실태

홀리건(Hooligan)은 사전적 의미로는 「축구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을 일컫는 말」로서 19세기 근대 축구가 성립된 후에도 축구장에서의 소규모 폭력사태는 종종 있어 왔다. 원래 홀리건은 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불량배나 불량아 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문헌에는 이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898년 영국의 한 조간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홀리건(Hooligan) 및 홀리거니즘(Hooliganism)의 이해(理解)는 국가의 세계화, 다양화, 선진화에 걸 맞는 경기장에 있어서의 경호·경비 체계의 발전 방안에 대해 아울러 모색해 볼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최근 우리 지구촌의 실상(實相)을 다각적으로 상기(想起)하여 볼 필요가 있다.

주요 홀리건 난동중 대형인명 사고를 보면 1964년 5월 24일 페루 리마에서 올림픽 예선전인 아르헨티나와 페루 전에서 경기 종료 2분 전 페루가 넣은 골을 심판이 부인하자 홈 축구 팬들의 난동으로 인해 318명 사망하고 500여 명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1969년 6월 8일 엘살바도르에서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월드컵 예선 경기 중 원정 응원단이 판정시비 끝에 구타당하자 방화로 보복하여 7월 양국간 전쟁으로 300여 명 사망했다. 그 후 지난 1998년 6월 14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의 월드컵 대회에서 영국과 튀니지 양국응원단 각 50여 명이 집단싸움으로 34명이 부상을 입고 새벽까지 시내 상점을 약탈했다. 또한 1998년 6월 21일 프랑스 낭트에서 월드컵 독일과 유고 전 전후 1,000여 명의 독일응원단이 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프랑스 경찰관 다니엘 니벨(44)이 홀리건의 쇠파이프에 맞아 혼수상태를 입었다. 미비한 사건들이지만 프랑스 월드컵 기간 중 매일 홀리건 난동 사건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홀리건에 의한 안전사고는 일반적으로 관중 난동에 의한 사례가 대부분이며 전반적인 특징은 서로 상대방 관중에 대한 불만 혹은 관중과 선수들의 마찰이라기보다는 심판에 대한 관중의 불만이 가장 많다. 즉 심판 판정에 대하여 해당 구단과 관중들이 승복하지 못하여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이러한 불만이 경기장에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집단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법원에 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다. 홀리건(Hooligan)은 일반적으로 첫째, 홀리건의 촉발 시작점이 심판의 판정에 대한 불만이다. 특히 지고 있거나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심판에 의해서 졌다고 생각할 때 심판에 대한 판정 불만이 홀리건(Hooligan) 난동의 요소가 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홀리건(Hooligan)은 다른 나라와 달리 경기를 이겼을 때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를 이긴 팀에서는 적어도 먼저 시비를 걸지 않고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기물을 부수거나 패싸움을 벌이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진 팀의 극성 팬들은 때로 자신들의 감정을 폭력적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우리나라 홀리건들은 아직 이점에서 다른 나라와 구별된다.

3. 국내·외 훌리건(Hooligan)의 대책

축구 발생지인 유럽에서는 축구의 역사와 함께 크게 사회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축구장 난동사건인 훌리건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다각적으로 검토와 실제적인 대안을 갖고 있으며 특히 국경선을 서로 복잡하게 맞대고 있어, 나라간 유동인구가 많은 유럽의 지리적인 특성상 훌리건 사건에 대한 많은 제재 수단과 함께 이의 시행착오도 충분히 경험하였다. 이에 반하여 전혀 국제적인 훌리건(Hooligan)경험이 없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먼저 국가 사회적으로 많은 사례를 겪어본 유럽 국가 중에서 최근 직접 '98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였던 프랑스의 예를 살펴보면, 이번 2002년 한·일 월드컵대회와 비교 우리나라에서의 훌리건(Hooligan) 대책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았다.

프랑스의 경찰은 훌리건(Hooligan) 계획을 수립함과 아울러 같은 해 체육행사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98월드컵에 대비하여 법제 98-146호로 보완 개정하였다. 정보활동 강화로 첫째, 파리 경찰청 산하 훌리건(Hooligan) 대책실에 종합 정보본부를 설치하여 훌리건(Hooligan) 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둘째, 각국의 훌리건(Hooligan)에 대한 정보를 월드컵 개최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하였고 셋째, 훌리건(Hooligan) 위해 분자에 대한 동향을 관찰하였으며 넷째, 불법 및 위해(危害) 입국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감시하였다. 또한 훌리건(Hooligan)의 입국 및 경기장 출입차단을 위해 세 분류로 나누었는데 첫째, 훌리건(Hooligan) list에 오른 사람이나 위해 인물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VISA 발급을 거부하는 국외에서의 차단과 둘째, 훌리건(Hooligan)의 list에 오른 사람이나 위험인물에 대해서는 국경(육상, 해상, 공항)에서부터 세밀하게 신원 확인하여 입국을 거부하는 국경에서의 차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입장권을 VISA번호와 연계시키고 입장권 구매자의 이름을 항공권처럼 실명을 기재하고 좌석을 지정함으로써 위조 입장권에 의한 입장이나 대리 입장을 차단하는 경기장 출입차단으로 나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주도하에 훌리건(Hooligan) 대책을 마련 해당국가에 위험인물의 출국금지 요청, 위험인물 입국거부, 각국 응원단 집결 및 행진에 대처, 경기장 내 대비 등 4단계 전략대책을 준비해 놓았다.

구체적으로 훌리건(Hooligan) 난동 단계별 주요대책을 보면 1단계로 본선 진출국 경찰과 협조, 월드컵 기간 동안 자국 훌리건(Hooligan)의 출국을 금지토록 요청을 하고 2단계로 훌리건(Hooligan) 리스트 입수, 법무부에 입국 금지 요청, 국내입국차단, 각국 훌리건(Hooligan) 전담기구와 협조, 극렬 훌리건들의 명단을 입수, 법무부 입국금지 요청을 하며. 3단계로는 훌리건(Hooligan) 감시조(Spotter)를 운용, 극렬 훌리건(Hooligan) 색출과 강제 출국 조치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는 훌리건(Hooligan) 난동대비, 훌리건(Hooligan) 전담 부대를 운용했다. 특히 개최도시별 훌리건(Hooligan) 전담부대를 경기장 및 시내 중심가에 배치하여, 훌리건(Hooligan) 난동 시 초기에 진압, 피해발생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4. 결론

우리나라에서 처음 열린 월드컵대회를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개최한 준비된 훌리건 대책으로서 관중난동의 대표격인 훌리건(Hooligan)의 역사와, 형태 그리고 훌리건(Hooligan)의 촉발기제의 이념적 바탕이 되는 훌리거니즘(Hooliganism)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대회 안전대책고찰의 한 방편으로써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 대회를 경험한 프랑스 월드컵대회의 전반적인 안전대책에 의한 대회운영과 훌리건(Hooligan) 대책을 분석하여 보았다. 따라서 훌리거니즘(Hooliganism)에 대한 학문적이 접근은 관련학계를 위시하여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총동원되어 그 현상을 연구할 난제임과 동시에 훌리건(Hooligan)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절실히 느끼며 다른 학문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의 중요성을 시급히 강구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훌리건(Hooligan) 대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근래에 활성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비정부기구 시민운동의 한 일환으로 “붉은 악마”라는 훌륭한 서포터스가 있으니 우리민족성에 맞는 새로운 응원문화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연구에 따른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전략 전술인 훌리건 진압의 전술 개발이다. 셋째, 일반적인 사람들이 열광하는 관중에 국한된 축구장에서 경찰이나 군 대신 혼잡경비나 경호업 경험을 축적시켜온 민간용역 경호·경비업자의 활용 및 양성(Stadiers의 양성 및 활용)이 거부감이 없는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훌리건 대응 전문 단일기관의 조직이 필요하며 다섯째, 훌리건(Hooligan)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의 대국민 홍보와 여섯째, 악성 훌리건 단체에 대한 정보공유와 국제공조의 원활화, 일곱 번째,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온라인을 통한 상대 비방적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대비책과 마지막으로 훌리건(Hooligan) 난동에 대한 전문 경비지휘체계와 전문 인력의 확보가 있을 수 있겠다.

이번 월드컵 대회는 경제, 사회, 문화가 망라된 지구촌 최대규모의 행사로 종합적인 대책마련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대규모 국제행사나 경기에 있어서 위의 대책이 우선되어 추진된다면 안전한 경기와 성공적인 대회가 치루어 지리라 예상된다. 앞으로는 국제대회와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열리리라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하여 경기장의 소방 및 경비설비등의 Hard적 대책과 피난을 위한 동선과 관중의식등에 대한 Soft적 대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1. 임현진, 21세기 한국사회의 안과 밖,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2. 국방부 정책기획국, 국제테러리즘(21세기의 새로운 전쟁), 2001.
3. 백영철 (법학박사), 21세기 신종테러양상과 월드컵 대테러 방안, 경찰청, 2002.
4. 경찰청, 2002월드컵대회 훌리건 안전대책, 2002.
5. 경찰청(경비교통국), 98프랑스월드컵축구대회대테러·안전활동, 1999.
6. 강석영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수), 정치지배와 테러리즘, 2002.

7. 최원기 (한국 청소년 개발원 부연구위원), 붉은 악마 그 사회 문화적 의미, 2002.
8. 이만우 (국회 입법정보연구원 사회학박사), 축구 관중의 정신분석, 2002 .
9. 이장영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축구경기와 홀리건, 2002.
10. 정준영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축구와 노동계급, 2002.
11. 경찰청,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경찰백서, 2002.
12. 이인상 (연세대 사법행정 대학원 석사논문, 지도 박상기 교수), 국제경기대회의 안전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홀리건(Hooligan)대책을 중심으로 -, 2001.
13. 박장평 · 유근직 (강원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영국의 축구홀리건에 관한 역사적 연구 (1), 1999.
14.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경기장 질서와 안전에 관한 법적 연구, 치안연구소, 2002.